FINA 사무총장 "광주처럼 뜨거운 환영은 처음"

〈국제수영연맹〉

"수영장을 카메라에" 29일 오후 국제수영연맹(FINA) 코넬 마르쿠레스쿠 사무총장을 비롯한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현지실사단이 동아수영대회가 열린 염주수영장을 방문해 강운태 광주시장과 함께 경기장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광주 실사

프리젠테이션 밝은 분위기서 진행 … 실사단 만족감

동아수영대회 개회식 참관 … 뜨거운 수영 열기 극찬

29일 오전 광주공항에 도착한 코넬 마르쿠레스쿠 국제수영연맹(FINA) 사무총장과 피터 홀, 마크 카노 안토네이즈, 소이치 다카하시 위원 등 실사단 5명은 "웰컴 피나"(Welcome FINA)를 외치는 광주 시민의 환영인사에 밝은 웃음으로 화답했다.

시민과 학생 등 300여명의 환영인파는 실사단이 공항로비에 모습을 드러내자 '스포츠 러빙 시티'(Sports Loving City)와 '웰컴 피나'(Welcome FINA)가 적힌 손펼침막을 일제히 흔들며 환영했다.

색동옷을 입은 어린이들이 실사단에게 꽃다발을 전달하자 코넬 마르쿠레스쿠 사무총장은 이들의 이름을 물어보는 등 친근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공항 환영식 후 코넬 마르쿠레스쿠 사무총장은 U대회조직위원회에서 열린 프리젠테이션 인사말에서 "세계 여러 국가를 다녀봤지만, 광주처럼 실사단을 환영해준 곳은 없었다"며 "유치를 염원하는 광주 시민의 마음이 느껴졌으며, 호의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비가 내린 이날 날씨와 연관해 "Water is our world, 물은 곧 우리(수영)의 세계인데 비가 내리는 것은 좋은 징조"라며 광주의 첫 인상에 대해 만족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실사단은 이날 광주시가 마련한 프리젠테이션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 만족감을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프리젠테이션의 분위기는 엄숙하면서도 밝은 분위기였다"면서 "실사단의 질문도 개최준비 등을 의심하는 의문형이 아닌 잘했으면 한다는 호감형의 표현이 많았다"고 실사 분위기를 전했다.

실사단은 PT 이후 염주수영장에서 열리는 제85회 동아수영대회 개회식과 경기를 참관하면서 광주시민의 뜨거운 수영 열기를 극찬하기도 했다. 오는 5월 4일까지 열리는 이번 대회는 2013세계수영선수권(7월 19일~8월 4일·스페인 바르셀로나)과 하계유니버시아드(7월 6~17일·러시아 카잔),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6월 29일~7월 6일·인천) 등 국제대회 대표 선발전으로 치러지면서 대회 열기가 그 어느해보다도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한편,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광주와 헝가리 부다페스트가 유치를 신청했으며, 오는 7월 19일 스페인바르셀로나에서 이번 실사단의 평가서를 바탕으로 FINA집행위원 22명의 투표로 결정된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추경 상임위 심의 … 광주·전남 신규 사업

보성~임성리 철도 반영 車 100만대 생산은 누락

지역 국회의원들 분발해야

박근혜정부 출범 후 첫 편성된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에서 모두 누락〈광주일보 23일자 1면〉됐던 광주·전남지역 신규 현안사업 일부가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됐다.

하지만, 광주시의 미래를 설계할 각종 예산이 대부분 누락됐을 뿐 아니라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조차 예결특위라는 마지막 절차를 통과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지역 국회의원들의 분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위원장 주승용 의원)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 예산안에는 정부안에서 빠진 ▲보성~임성리 철도 건설(300억)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20억) ▲흑산도 공항 건설(30억) ▲광주 송정~순천 전철화(10억) ▲광주 도심하천 생태복원 사업(5억) 등 모두 365억원의 광주·전남지역 예산이 반영됐다.

하지만, 산업통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넘겼으나 지역사업은 정부 예산안대로 하고 다른 지역 예산은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광주시에서 반영 요청한 ▲치과 소재 부품 기반시설 구축(100억원)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조성(30억원) ▲하이테크 몰드 허브 구축(183억원) ▲클린디젤자동차 부품산업 육성(250억원) 등 예산은 모두 누락됐다.

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이하 교문위)도 광주시에서 요청한 2015광주하계U대회 경기시설 확충 예산 100억원에 대해 기존에 반영된 예산 중 못 쓰고 이월한 부분이 190억여원이나 된다는 정부의 지적에 따라 이번 추경에서 반영하지 않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자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상임위에서 논의할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개발 500억원은 아직 예산소위 논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여서 상임위 반영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교문위 측은 이날 중 예산소위 논의를 마친 후 30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역 예산 대부분이 빠져 아쉽지만 이번에 상임위에서 반영된 것이라도 예결특위에서 지켜지도록 지역정치권이 노력해줬으면 한다"며 "또 누락된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의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무소속 안철수 의원

"상임위 바꾸실 분 없나요?"

국회입성 5일 넘도록 배정조차 받지 못해 일대일 접촉 의사 타진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국회에 입성한 지 5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상임위원회 배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안 의원은 관행대로라면 전 지역구 의원이었던 진보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의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 배정돼야 한다.

하지만 안 의원이 안랩 주식 186만주(지분 18.57%)를 보유하고 있어 공정거래위,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등을 소관하는 정무위에는 업무 관련성 때문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기획재정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산업통상자원위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들 상임위에 가려면 안 의원이 현재 보유 중인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면 가능하다. 하지만 그럴 경우 안 랩 투자자들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안 의원 측은 다른 비교섭단체 의원들을 일대일로 접촉해 상임위 변경 의사를 일일이 타진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은 실정이다.

상임위별로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인원이 배정돼 있어 무소속인 안 의원은 1차적으로 비교섭단체 의원 간에만 상임위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상임위에 속한 비교섭단체 의원은 모두 17명(통합진보당 6명, 진보정의당 6명, 무소속 5명)에 불과한데다 대부분 상임위에서 나름대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어 바꿀 의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안 의원은 희망하고 있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에는 비교섭단체로 진보정의당 정진후, 무소속 현영희 의원 등 2명이 배정돼 있지만 인기 상임위여서 안 의원이 비집고 들어가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안 의원 측은 민주통합당에도 의중도 타진하고 있지만 반응은 시원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의 상임위 진출은 상당 기간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도대체 이게 뭡니까?!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전국 점망
서울 삼일로점(탑골공원 삼일로 입구):02)2276-0687~9 강남점(강남고속터미널 앞):02)3477-5110 종로2가점(금강제화 옆):02)733-0220 송파점(석촌역 2번 출구):02)419-3388 신림점(신림역 2번 출구):02)865-1838 경기 인천점(구.시민회관 앞):032)421-2288 부평점(부평역앞):032)517-5110 수원점(남문 옆):031)246-5110 의정부점(포천로터리 홍국생명 앞):031)821-6655 안양점(벽산스필2001 아울렛 앞):031)469-0110~1 평택점(평택역 앞):031)658-5110 용인점(용인네거리):031)336-1090 오산점(국민은행 2층):031)378-4183 부천점(롯데백화점 옆):032)329-4400 남양주점(광내 호평역 앞):070)8829-9903 부산 서면점(서면로터리):051)818-8800 서면A점 818-0016 남포동점(부영극장 앞):051)256-7200 울산 울산점(공업탑로터리):052)268-2283 경남 마산점(마산역 앞):055)297-6060 진주점(중앙로터리 옆):055)745-9870 대구 동인점(동인네거리):053)425-4440 삼덕점(삼덕네거리):053)426-1511 남일동점(이카데미극장 옆):053)425-7575 경북 포항점(육거리):054)244-5110 안동점(구 안동농고네거리):054)859-2248 광주 광주점(금남로 4가역 사거리):062)225-5110 광주점(백운광장):062)651-4477 전남 순천점(중앙사거리 지하상가입구):061)752-8845 전북 전주점(진북로터리):063)252-5728 군산점(구.시청정문 옆):063)446-0198 익산점(북부시장네거리):063)838-5600 남원점(시장네거리):063)632-2626 대전 대전점(도청 앞):042)254-5110 대전점(중촌로터리):042)222-3388 대전점(대전역 앞):042)255-4900 충남 천안점(천안역 앞):041)553-2888 공주점(공주큰사거리):041)852-5110 충북 청주점(현.까르프 구.속리산고속 맞은편):043)222-1177~8 충주점(삼원로터리):043)852-1414 강원 강릉점(옥천오거리):033)647-0588 춘천점(팔호광장 앞):033)253-5110 제주 제주점(광양로터리):064)753-4368

세계적 권위의 인증!FDA허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허가 인증
국제품질 ISO 9001인증
국제의료기품질 ISO 13485인증
유럽공동체 CE마크 인증
의료용구 제조업체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538-9388

■광주점(금남로 4가역 사거리)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225-5110
■광주점(백운광장)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651-4477
■순천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1)752-8845